

# 세계 농산물 교역 전망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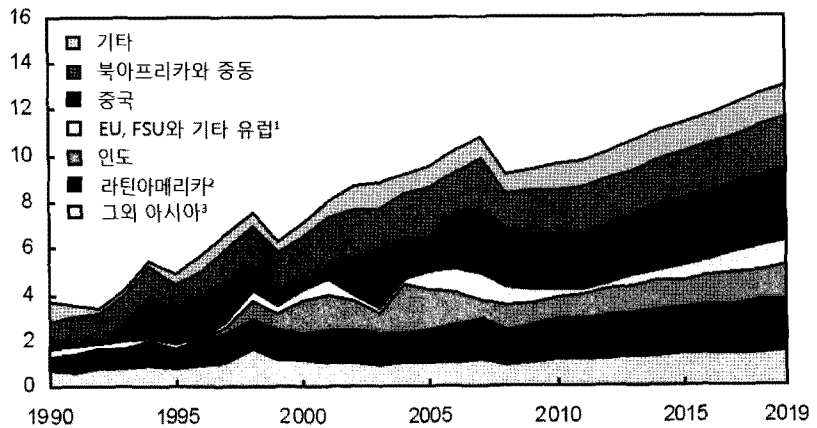
최익창 · 이정민 · 김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지난호의 계속)

## 대두유

[그림 8] 세계 대두유 수입

단위: 백만 톤



주: 1) EU, 구소련연방 및 기타 유럽, 2) 멕시코 포함, 3) 인도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세계 대두유 수입은 식용과 바이오연료 제품에 필요한 대두유의 수요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중 세계 농산물 교역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번역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익창, 이정민, 김대석 연구원이 작성하였다(cic@krei.re.kr, 02-3299-4354, fantom99@krei.re.kr, 02-3299-4198, sorihunt@krei.re.kr, 02-3299-4127).

세계 대두유 수입은 식용과 바이오연료 제품에 필요한 대두유 수요 증가로 인해 예상보다 3백4십만 톤(35%)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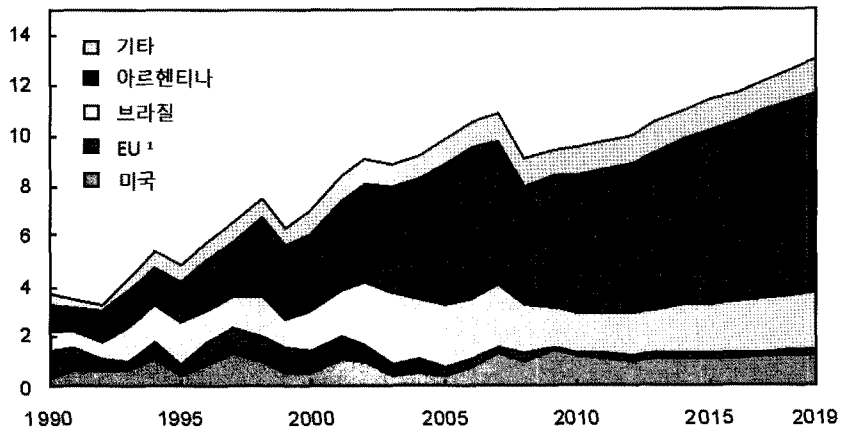
증가로 인해 예상보다 3백4십만 톤(35%) 증가하였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시장에서 주요 대두유 수입국이며 주로 음식 조리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두 국가의 수입 물량의 합은 세계총수입의 1/3 이상이었다. 대두유 교역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 식물성오일 무역의 선두자리를 놓고 야자유와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라틴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중동지역의 소득과 인구의 증가는 대두유의 수요와 수입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인도는 대두유 수입이 많은데, 그 이유는 식물성 기름의 국내 수요 급증과 유지작물의 국내 생산량 증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불규칙한 생육 환경, 투입재 사용 저조, 낮은 단수로 인도의 유지작물 생산량 증가가 어렵다. 국제 가격의 상승으로 인도의 식용유 수입 관세는 2008년 철폐된 바 있다. 향후 십년간 대두유 관세는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다른 주요 수입유의 관세는 75~85%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식물성 기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사용에 있어 다른 작물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작물 재배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

[그림 9] 세계 대두유 수출

단위: 백만 톤



주: 1) EU 내 교역 불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대두유 수출에서 75~8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과 2009년에는 작황이 좋지 못해



73%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전통적 수출국인 만큼 전망기간 동안 다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는 식용유 가공능력이 뛰어나고, 국내 대두유 시장이 크지 않으며, 대두보다 대두를 가공한 제품의 수출 관세가 낮기 때문에 대두유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북동부의 불모지 개척과 이모작 및 방목지의 조정으로 인한 대두 생산 증가로 대두 가공과 대두유 수출이 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가공능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아메리카의 국가들로부터 대두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두유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에서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대두재배가 증가하여 대두유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대두유의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미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대두유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두유가 바이오디젤 생산에 이용됨에 따라 수출에 제약요인이 되었다. 캐나다로부터 카놀라유(Canola Oil)를 수입하고 동남아로부터 팜유(Palm Oil)를 수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식용 기름의 공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에서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성 기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 육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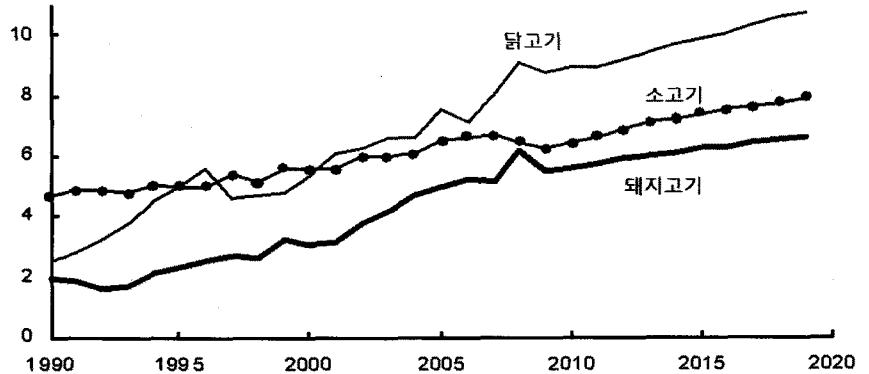
육류 수출량은 쇠고기 1천 5백만 톤(2.2%), 돼지고기 9십만 톤(1.8%), 가금류 1천 5백만 톤(1.9%)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1인당 육류 소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약 0.6%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수출국의 수출량은 여전히 연간 1.8%씩 상승할 전망이다. 전망기간 동안 부류별 수출량은 쇠고기가 1천 5백만 톤(연간 2.2%), 돼지고기가 9십만 톤(연간 1.8%), 가금류가 1천 5백만 톤(연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인구 증가와 1인당 소득 증가로 인해 세계 육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육류 수입은 정부의 국내 육류 생산 증대 정책으로 전망기간 동안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10] 세계 육류 수출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은 전망기간 동안 천천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구제역(BSE)이 처음 발생한 2002년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쇠고기 수출은 EU가 쇠고기 생산을 줄이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제한함으로써 WTO가 제한하는 수준(81만 7천 톤) 아래로 유지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출은 2005년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세와 정책 변화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수출 경쟁력은 저하되었으나, 쇠고기 수출은 국내 생산과 1인당 소비가 늘면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전망기간 동안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가정한다. 브라질의 돼지고기 분야가 확장됨으로써 돼지고기 수출은 일본과 한국 시장보다 러시아,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망기간 동안 브라질은 가금류 생산물의 가장 큰 수출국으로의 지위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 쇠고기

쇠고기 수입은 주요 수입국이 1백 5만 톤(23%) 이상 수입을 늘려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적인 경기악화로 인하여 2008년과 2009년의 쇠고기 수입은 감소하였다. 2008년에는 남아시아국가들과 유럽연합, 이집트의 수입이 감소했으며 2009년에는 러시아와 멕시코의 수입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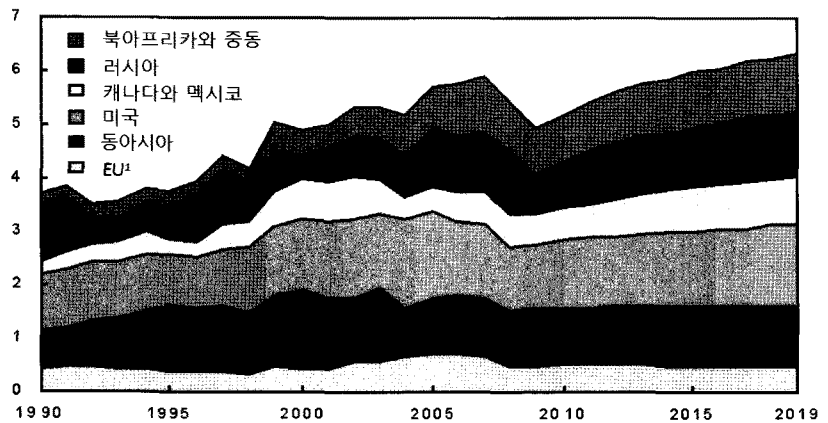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쇠고기 수입은 주요 수입국이 1백5만 톤(23%) 이



상 수입을 늘려 전반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은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이었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방목으로 키운 쇠고기가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

[그림 11] 세계 쇠고기 수입

단위: 백만 톤



주: 1) EU 내 교역 불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소비의 증가로 인하여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여 자국 생산량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유럽연합과 남아메리카의 쇠고기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방목하여 기른 쇠고기 수입을 꾸준히 늘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들 국가에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향후 10년 동안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주로 방목한 쇠고기를 수입하며, 같은 쇠고기와 가공품을 만들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지방이 적은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어, 앞으로 수입이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쇠고기 수입이 많은 아시아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쇠고기 수출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의 쇠고기 수입은 2010년부터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의 수입에는 미국의 곡식으로 키워진 쇠고기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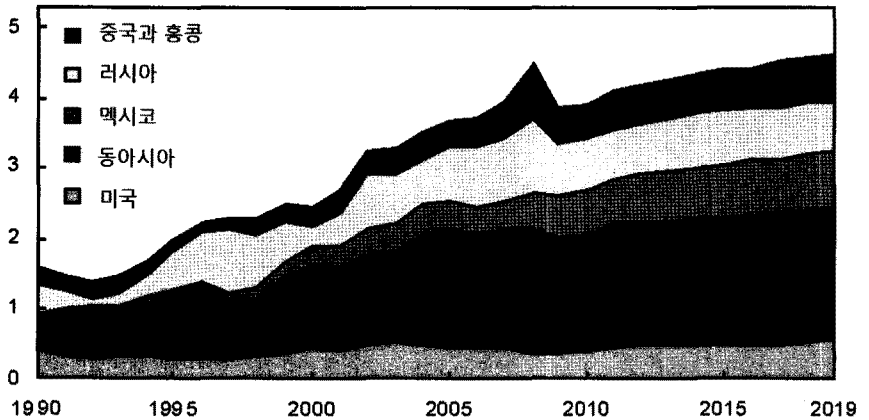
## 돼지고기

전망기간 동안 돼지고기 수입은 70만 톤 이상 증가하여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돼지고기의 수입은 2008년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9년 세계경제 위기로 인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및 이전 구소련 연방(FSU), 중국, 일본,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수입 감소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 기간 동안 돼지고기 수입은 70만 톤 이상 증가하여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2] 세계 돼지고기 수입

단위: 백만 톤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멕시코는 세계 돼지고기 수출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이다. 소득과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전망기간 동안 19만 톤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향후 10년 동안 세계의 돼지고기 무역에 있어서 전체의 1/4 수준까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시아의 일부 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부위의 돼지고기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수입국이었으나 현재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아시아지역에서 돼지고기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 전망기간동안 세계 돼지고기 수입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은 2007년 돼지질병으로 인하여 대폭 감소하였으며 2008년에는 소규모 수입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다시 생산을 재개하여

2009년에는 소규모 수출이 되었다. 향후에도 돼지고기 생산은 증가할 전망이다이며, 거의 대부분 자국에서 소비되고 소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돼지고기 수입은 향후 10년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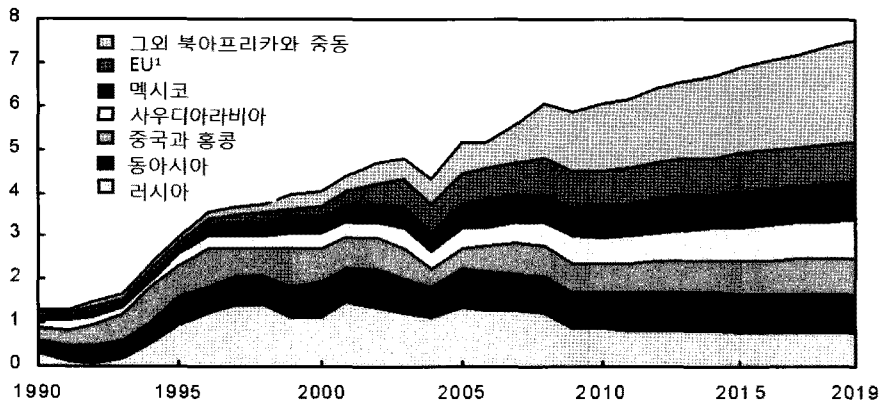
## 가금류

가금류의 수입은 세계적 경기 불황에도 감소하지 않았으며 전망 기간동안 약 1백 5십만 톤(2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가금류의 수입은 주요 수입국들로 인해 세계적 경기 불황에도 감소하지 않았으며 전망기간동안 약 1백 5십만 톤(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소련 연방(FSU)과 유럽,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금류의 수입은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세계 가금류 수입

단위: 백만 톤



주: 1) EU 내 교역 불포함  
 자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

2010~2019년까지의 세계 가금류 수입량 증가의 주된 원인은 주요 수입국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북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의 인구 증가와 소득 상승에 따른 수요 급증 때문이다. 한편, 여러 국가에서 동물 관련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생산량 증가폭 둔화와 수입량 증가가 예상된다.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캐리비안 지역에서는 소득 증가로 인하여 가금류 수요와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의 가금류 가격은 쇠고기

와 돼지고기에 비해 가격이 낮아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2019년까지 멕시코의 국내 가금류 생산은 증가하지만 소비 증가율 보다는 낮고, 수입량은 18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가금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러시아는 정책적으로 TRQ 제한과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소득과 1인당 가금육류 수요 증가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생산이 제한적이고, 1인당 소비는 증가하여 향후 10년간 수입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과 중국 등의 가금류 주요 수출국들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완전조리식품으로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리식품은 생산비용이 높아져 아시아, 유럽, 중동 등의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가금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이 증가하고, 수입과 수출도 각각 15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끝)

#### 참고문헌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19, February 2010.